중년층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Preference of elderly housing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middle-ages background

오 찬 옥*
Oh, Chan Ok
이 연 숙**
Lee, Yeun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iddle-aged housewive's backgroun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the preference of elderly housing, depending on four aging-situ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housing dealt in thes study were geographical location, specially planned feature for the elderly, house type, the size of housing, housemate, the distance from the living quarter of their children, and whether they want to live in the rental house.

The subjects were 526 middle-aged housewives from middle-income households living in the capital area. Questionnaires were sent through mail to the households which tesponded positively onthe information brochure about this study sent b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housing which preferred to was influenced by their age and socio-economic status, such as schooling, job, income, and the size of hous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must be considered to develop various types of the elderly housing depending on socio-economic status.

I. 서 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70년 3.4%, 1980년 3.9%, 1990년 5.1%로 이런 비율로 증가할 경우 2000년대초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노년인구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또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도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세대와 동거해야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동거주체인 노인과 부양주체인 기혼 자녀세대의 의식이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즉 노인의 삶의 형태가 다양함에 비해 현대 사회의 주택 특히 집합주택은 핵가족을 대상으로 계획 공급되었기 때문에 환경적 의존성이 큰 노인에게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게 함은 물론 선택가능성을 없게 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삶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노인주택의 개발이 중요하며,

* 정회원,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부교수

이러한 노인주택을 개발하려면 실제 거주자가 될 노인의 행태와 요구, 선호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많은 제한된 상황속에서 살아왔기때문에 현재의 노인보다는 곧 노인이 될 중년층의 노인주택에 대한 요구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인주거개발 및 수요예측에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주택계획을 위해서는 선호파악의 대상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노년기를 하나의 일관된 단계로 보기보다는 노화되는 과정상의 상황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노년기 전체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오찬욱과 이연숙, 1993;고성룡, 1990;박태환, 1990).

이러한 맥락에서 오찬욱과 이연숙(1993)은 노년기 상황을 설정함에 있어 배우자 유무와 건강상태에 따라 4가지 상황 즉 부부동거/건강, 부부동거/건강악화, 혼자거주/건강, 혼자거주/건강악화 상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각각의 상황에서의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하였던 8가지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가 노년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인주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성향뿐 아니라 이 선호성향이 거주예정자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의 파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주 예정자들이 어떠한 노인주거특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거주자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개발하는데 기초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노년기의 4가지 상황에서의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주거특성 각각에 대한 4가지 상황에서의 선호 각각이 중년층의 어떠한 배경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노인주택에 대한 한국적 모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건설업계가 그 수요를 예측하는데, 그리고 거주자에게 적합한 특성을 가진 노인주택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논문은 선행연구(1993)인 노년기의 4가지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조사대상의 선정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선정 방법

수도권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1992년 1월과 2월중에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1980년말에서 1990년초에 분양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30평이상 아파트 당첨자로서 가구주의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3,816가구에 본 설문지에의 응답의사를 묻는 엽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해 응답의사를 표명해 온 선착순 800가구에 설문지와 답례품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응답한 설문지를 보내온 621가구중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시키고 총 526가구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내용

자료분석은 SAS-PC를 이용하였다.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1]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수입, 직업, 현재의 주거유형과 주택평수, 부모와의 동거경험, 그리고 가족관계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지리적 위치, 노인계

1) 종속변인 Y가 취할 수 있는 범주를 1,2,...,k라고 하면 순서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ordered polytomous model)은 다음과 같다.

$$\log \frac{P_j}{1-P_j} = \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varepsilon \quad (j = 1, 2, \ldots, k-1)$$

(단, P_j는 Y가 j값을 가질 확률)

또는 $P_j = Pr\{Y \le j\} = \dfrac{\exp(\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ldots + \beta_{k-1} x_{k-1})}{1 - \exp(\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ldots + \beta_{k-1} x_{k-1})}$

$Pr\{Y \le j\}$: 종속변인의 값이 범주 1,2,... 또는 k-1일 확률

β_1: 로지스틱 회귀계수 (j값과 무관)

x_1: 독립변인

α_1: 상수항

획주거에의 거주의사, 주거유형, 주택평수, 동거자,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임대주택에의 거주의사의 7개 노인주거특성 각각에 대한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에서의 선호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7개 노인주거특성 각각에 대해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를 분석하여, 총 28번의 분석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Score Test에서 x^2 검정 결과가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경우,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확률값(P_j)[2]을 구하여 이를 도식화하였다.

III. 분 석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분포

결과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분포는 <표1>과 같다.

연령은 40대가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수입은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140만원미만이나 100만원미만의 경우가, 그리고 직업은 화이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 동거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간에 융화력이 있거나 강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20평에서 30평사이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표1>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분포

배 경 변 인	내 용	빈 도	백분율
연령	1:30-39세	136	25.9
	2:40-49세	275	52.3
(N=526)	3:50세이상	115	21.9
학력	1:중졸이하	108	20.5
	2:고졸	283	53.8
(N=526)	3:대졸이상	135	25.7
수 입	1:100만원미만	163	31.5
	2:100-140만원미만	163	31.5
	3:140-180만원미만	103	19.9
(N=518)	4:180만원이상	132	25.5
직 업	1:화이트직	296	61.5
(N=481)	2:블루직	185	38.5
현 주거유형	1:단독주택	133	26.5
	2:다세대/연립주택	231	46.0
	3:저층아파트	88	17.5
(N=502)	4:고층아파트	50	10.0
현 주택평수	1:20평미만	163	31.4
	2:20-30평미만	209	40.3
(N=519)	3:30평이상	147	28.3
부모와의 동거경험	1:모신 경험이 있다.	278	53.7
	2:모실 계획/가능성이 있다.	93	18.0
(N=518)	3:모실 가능성이 없다	147	28.4
가족관계	1:없는 편이다	61	11.6
(가족간 융화력)	2:있는 편이다	306	58.2
(N=526)	3:강한 편이다	159	30.2

2.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1)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호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표2>[3]와 같이 노년기의 4가지 상황중 혼자거주/건강시만이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4]

2) P값은 SA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음.

```
data itsme. dummy1;
  do age=1 to 3;/* age=1 is 30, 2 is 40 etc. */
      p1=1/(1+exp(-(age*(-0.27)-0.89)));
      p12=1/(1+exp(-(age*(-0.27)+0.234)));
      p123=1/(1+exp(-age*(-0.27)+2.143)));
  output;
  end;
data itsme. dummy2;
      set itsme. dummy1;
      p2=p12-p1;
      p3=p123-p12;
      p4=1-p123;
run;
proc print data=itsme. dummy2;var p1 p2 p3 p4;
run;
```

3)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으로, 이후의 표는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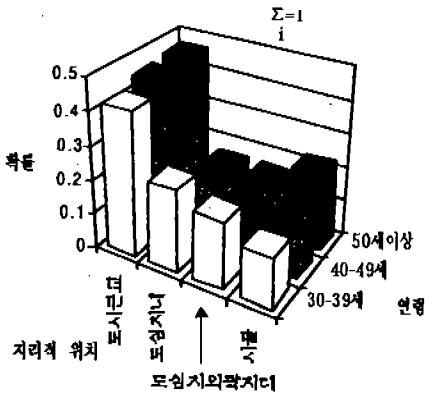
4)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P값이 0.0402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이 모델은 채택가능함.

<표2>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 독립변인	Maximum Likelihood Estimate of coeffecient b(Standard Error) 부부	부부	혼자	혼자
intercept1			-0.8866**	(0.2735)***
intercept2			0.2384	(0.2683)
intercept3			2.2037**	(0.2921)***
연 령			-0.2672*	(0.1300)**
학 력			-	
수 입			-	
직 업			-	
현주거유형			-	
현주택평수			-	
Score Test Chi-Square			0.7088	
d.f.			2	
P-Value			0.7016	
Model Fithrg -2 LOG L			4.210	
d.f.			1	
P-value			0.0402	
Number of Obs #			1=68, 2=82 3=138, 4=54	

** : p<0.06 *** : p <0.001
# : 1=도심지내, 2=도심지 외곽지대, 3=도시근교, 4=시골

혼자거주/건강시의 연령에 따른 지리적 위치 선호확률은 <그림1>과 같다. 모든 연령층에서 도시근교를 선호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도시근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시골을 선호할 확률은 그 정도는 약하지만 높아진 반면, 도심지내나 도심지 외곽지대를 선호할 확률은 낮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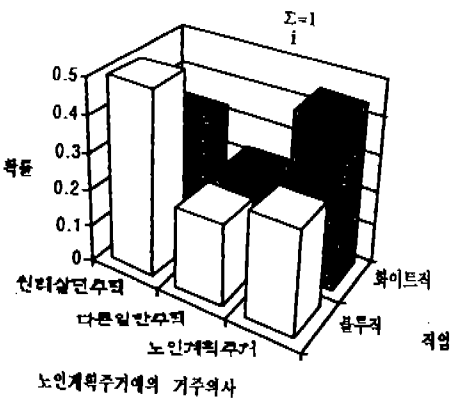


<그림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지리적 위치 선호 확률(혼자거주/건강시)

2) 노인계획주거에의 거주의사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노인계획주거에의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노년기의 4가지 상황중 혼자거주/건강시만이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거주/건강시의 직업에 따른 노인계획주거에의 거주 선호확률은 <그림2>와 같다. 남편이 블루칼라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원래 살던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은 반면, 화이트칼라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노인을 위해 특별히 계획한 노인계획주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화이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블루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노인주거대안에 대한 주요 호응자는 화이트직 종사가족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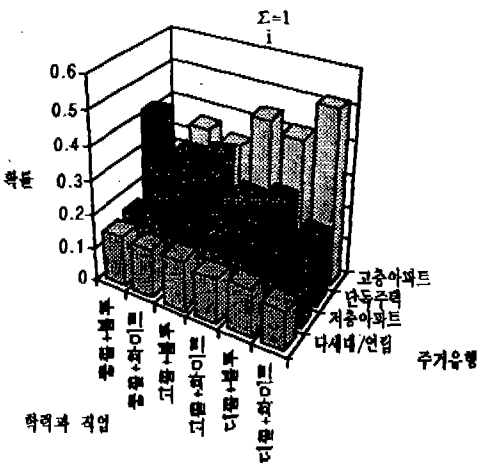
<그림2>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노인계획주거에의 거주 확률(혼자거주/건강시)

3)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4가지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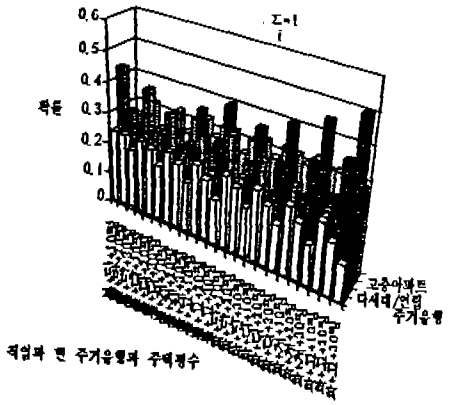
부부동거/건강시는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가 학력과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업에 따른 주거유형 선호확률은 <그림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단독주택과 고층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는 성향을 보여,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고 화이트직에 종사할수록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진 반면, 학력이 낮고 블루직에 종사할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학력이 대졸이상이면서 화이트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층아파트를, 중졸이하이면서 블루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단독주택을 선호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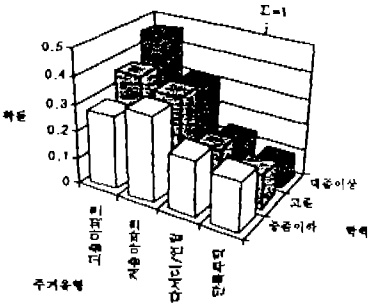
<그림3>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수입별 주거유형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시)

부부동거/건강악화시는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는 직업과 현재의 주거유형 및 주택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현재의 주거유형 및 주택평수에 따른 주거유형 선호확률은 <그림4>와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가 30평이상인 경우는 직업과 현재의 주거유형에 상관없이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20평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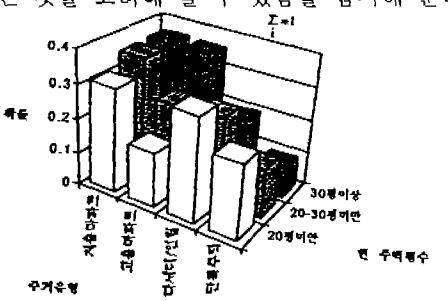
<그림4> 조사대상자의 직업과 현 주거유형과 주 택평수별 주거유형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악화시)

혼자거주/건강시는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는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주거유형 선호확률은 <그림5>와 같다. 전반적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는 저층이나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현대적인 주거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5>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주거유형 선호확률 (혼자거주/건강시)

혼자거주/건강악화시는 주거유형에 대한 선호는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주거유형 선호확률은 <그림6>과 같다. 전반적으로 저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수가 넓을수록 고층아파트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계획주거 계획시 주택평수를 구성함에 있어, 저층아파트는 주택평수의 구성을 고르게, 고층아파트는 넓은 평수를 많이,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적은 평수를 많이 분포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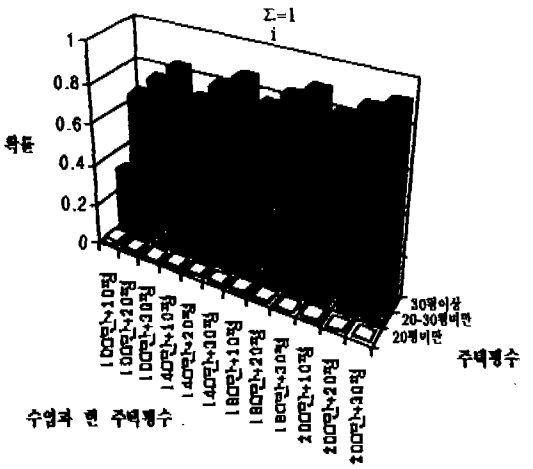


<그림6>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 주택평수별 주 거유형 선호확률(혼자거주/건강악화시)

4) 주택평수에 대한 선호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주택평수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노년기의 4가지 상황 모두에서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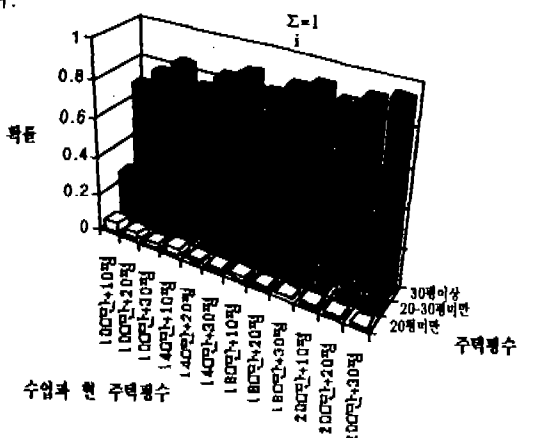
부부동거/건강시의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주택평수 선호확률은 <그림7>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수입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가 넓을수록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약하지만 점차 높아지는 반면, 20-30평미만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보다 더 넓은 평수의 주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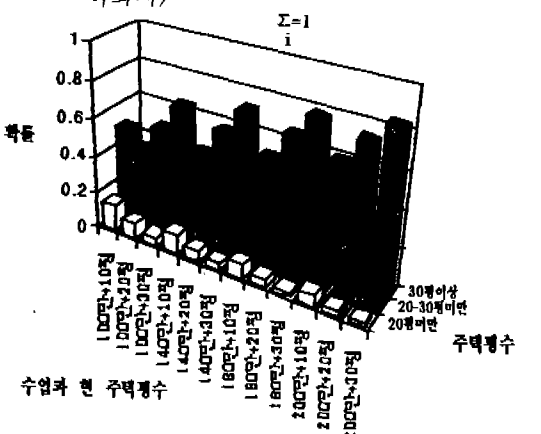
<그림7> 조사대상자의 수입과 현 주택평수별 주택평수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시)

부부동거/건강악화시의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주택평수 선호확률은 <그림8>과 같다. 부부동거/건강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수입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현 거주 주택의 평수가 넓을수록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그 정도는 약하지만 점차 높아진 반면, 20-30평미만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혼자거주/건강시의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주택평수 선호확률은 <그림9>와 같다. 전반적으로 30평이상을 선호할 확률이 높았고, 20-30평미만을 선호할 확률도 낮지 않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수가 넓을수록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20-30평미만이나 20평미만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또한 수입이 증가할수록 그 정도는 약하지만 같은 성향을 보여 30평이상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20-30평미만이나 20평미만의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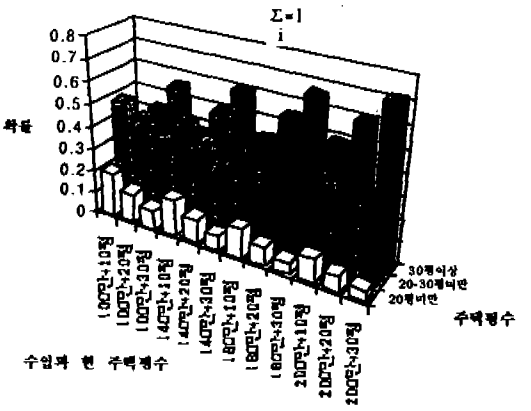
<그림8> 조사대상자의 수입과 현 주택평수별 노인주택평수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악화시)



<그림9> 조사대상자의 수입과 현주택평수별 노인 주택평수 선호확률(혼자거주/건강시)

혼자거주/건강악화시의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노인주택의 평수선호확률은 <그림10>과 같다. 혼자거주/건강시의 경우와 전반적인 성향은 같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

수가 넓을수록 30평이상되는 주택을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20-30평미만이나 20평미만을 선호할 확률은 줄어들었고, 수입이 많아질수록 그 정도는 약하지만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20-30평미만의 평수에 대한 선호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그림10> 조사대상자의 수입과 현 주택평수별 노인주택평수 선호확률(혼자거주/건강악화시)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가지 상황 모두에서 현재 넓은 평수에서 거주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넓은 평수를 선호할 확률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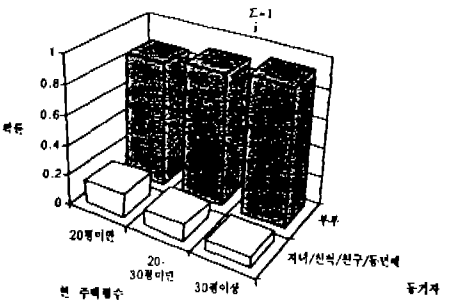
5) 동거자에 대한 선호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동거자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부부동거/건강시는 현재의 주택평수, 부부동거/건강악화시는 연령과 현재의 주택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동거/건강시의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동거자 선호확률은 <그림11>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노인세대만이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가 넓을수록 노인세대만이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그 정도는 약하지만 높아졌고 자녀나 친척 등과 거주하는 것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수록 노인세대만이 살면서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 주며,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노인단독거주형태의 주거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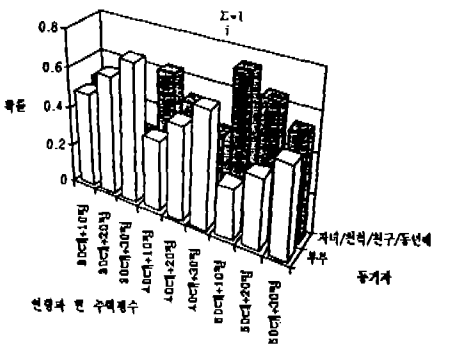
부부동거/건강악화시의 연령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동거자 선호확률은 <그림12>와 같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가 넓을수록 노인세대만이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졌고, 자녀/친척/친구/동년배와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

다. 이와 반대로 현재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살



<그림11> 조사대상자의 현 주택평수별 동거자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시)

고 있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나 친척 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현재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수록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경제적 제약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기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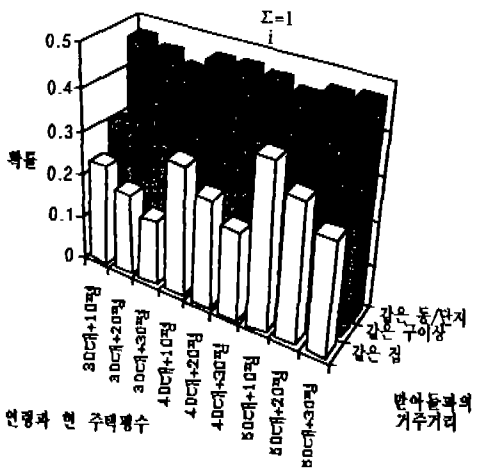


<그림12>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현 주택평수별 동거자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악화시)

6) 맏아들과의 거주거리에 대한 선호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맏아들과의 거주거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부부동거/건강악화시는 연령과 현재의 주택평수, 혼자거주/건강시와 혼자거주/건강악화시는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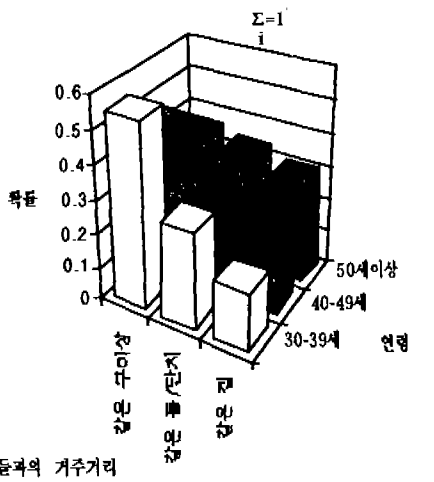
부부동거/건강악화시의 연령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른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은 <그림1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같은 동/단지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으면서 현재 적은 평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맏아들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고, 연령이 적으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수가 넓을수록 맏아들과 같은 구이상에서 떨어져서 거주하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부부동거/건강악화시의 동거자에 대한 선호의 경우, 즉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현재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수록 부부끼리보다는 자녀나 친척 등과 동거하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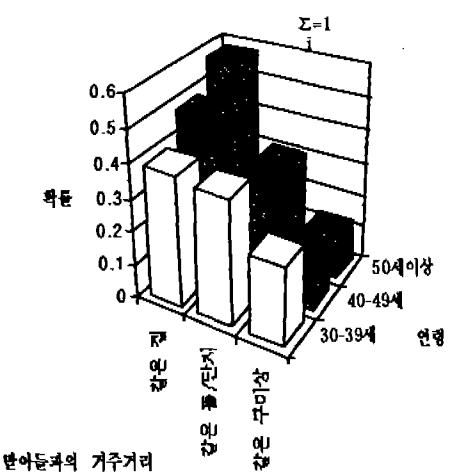
<그림13>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현 주택평수별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부부동거/건강악화시)

혼자거주/건강시의 연령에 따른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은 <그림14>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같은 구이상에서 떨어져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맏아들과 같은 집이나 같은 동/단지에서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이 높아진 반면, 같은 구이상에서 떨어져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거주/건강악화시의 연령에 따른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은 <그림15>와 같다. 연령이 많을수록 맏아들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은 높아진 반면, 같은 동이나 단지 또는 같은 구 이상에서 떨어져 사는 것을 선호할 확률은 낮아졌다. 즉 혼자거주/건강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 동거하면서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그림14>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혼자거주/건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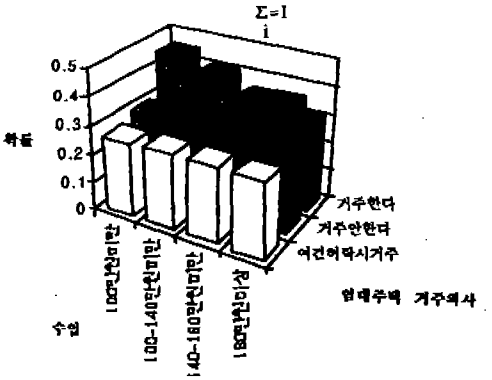


<그림15>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맏아들과의 거주거리 선호확률(혼자거주/건강악화시)

7) 임대주택에의 거주의사

노년기의 4가지 상황 각각의 경우 임대주택에의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부부동거/건강시만이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동거/건강시의 수입에 따른 임대주택에의 거주확률은 <그림16>과 같다. 수입이 적을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았고, 반대로 수입이 많을수록 거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이 많은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굳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16> 조사대상자의 수입별 임대주택에의 거주확률(부부동거/건강시)

IV. 종합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거주특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 위치, 동거자, 맏아들과의 거주거리와 같은 접근거리와 관련되는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라 달라졌다. 연령이 적을수록 혼자거주/건강시는 도심지에서 살기를, 부부동거/건강악화시는 노인부부만이 독립생활하기를 원하였으며, 혼자거주/건강악화시를 제외하고는 맏아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살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반대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혼자거주/건강시는 도시근교나 시골에서 살기를, 부부동거/건강악화시는 노인부부만이 살기보다는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였으며, 혼자거주/건강악화시를 제외하고는 맏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려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부부동거시는 건강에 상관없이 현 거주주택의 평수가 넓을수록 노인부부만이 살거나, 또는 건강악화시에도 맏아들과 떨어져 살려는 성향을 보였다. 즉 젊거나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의 의존성향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와 주택평수와 같은 주택점유와 관련되는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는 수입과 현재의 주택평수에 따라 달라졌다. 수입이 적을수록 부부동거/건강시는 임대하려는 성향이 있었고, 또한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현재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수록 노년기의 4가지 상황 모두에서 적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즉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수록 소유에 대한 의식과 공간의 크기에 대한 규범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유형과 노인계획주거에의 거주의사와 같은 주거디자인과 관련있는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는 직업과 학력 즉 사회적 지위와 현재의 주거유형 및 주택평수에 따라 달라졌다. 건강시에는 배우자유무에 상관없이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을, 높을수록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혼자거주/건강시에는 직업이 블루직인 경우는 원래 살던 주택에서 그대로 살기를, 화이트직인 경우는 노인을 위해 계획한 계획주거에서 살기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혼자거주/건강악화시를 제외하고는 직업이 블루직인 경우는 단독주택을, 화이트직인 경우는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건강악화시에는 배우자유무에 상관없이 현 거주주택의 평수가 적을수록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넓을수록 저층이나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주택에 대한 선호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중 특히 연령과, 학력, 직업, 수입, 주택평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경험은 오랜동안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주택은 획일적인 단일 형태로 개발하기보다는 다양한 노인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계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태환(1990),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계획주거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오찬옥(1992),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주거모델,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오찬옥, 이연숙(1992), 노년기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하위상황설정기준 - 배우자 유무 및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2권 2호, 123-136면.

오찬옥, 이연숙(1993),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2호, 35-45면.

이연숙 외(1991),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허명회(1989), SAS범주형 데이타 분석, 자유아카데미.

Altman, Irwin, Lawton, M. Powell, and Wohlwill, Joachim F.(1984). Elderly People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Brent, Ruth Stumpe, et al.(1991). Older Adults Residing in Their Own Home : Prioritizing Housing Inadequacies, Housing and Society, 18.1, 25-35.

Carp, Frances M.(1987). Environment and Aging. In Stokols, Daniel and Altman, Irwin (1987).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1. New York : John Wiley & Sons.

Delvin, A.S.(1980), Housing for the Elderly. Environment and Behavior. 12. 451-466.

Freund, Rudolf J. & Littell, Ramon C.(1991). SAS System for Regression.

Hanushek, Eric A. & Jackson, John E.(1977). Statistical Methods for Social Scientists. Academic Press.

Hubbard, Linda and Beck, Tom (1984). Housing Options for Older Americans.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Iams, Donna, et al.(1990). Enviromental Quality : A Factor in the Selection of a Retirement Community, Housing and Society, 17.2, 13-16.

Sumichrast, Michael, Shafer, Ronald G., and Sumichrast, Marika(1984). Planning Your Retiriment Housing.

Welch, P., Parker, V. and Zeisel, J.(1984). Independence through Interdependence : Congregate Living for Older People. Boston, MA : Office of Policy and Planing.